



최근 산업보건동향

한국산업위생협회
kohma.kr

E-mail kohma@kohma.kr

Tel 02-782-3380

Fax 02-836-3380

[발행일] 2025. 8. 6.

한국산업위생협회

정부·국회

발전기금 모금요청의 건

1. 기금 요청 목적

1)산업위생전문가의 권익보호와 산업재해 예방 그리고 단합

2)산업보건종사자 및 회원들을 위한 활동

2. 기부방법

1)현금 : 계좌번호 국민은행 260201-04-2151153 예금주 한국산업위생협회

2)현물 : 발전기금 운영위원회와 기부자 간의 협의

3)정기적인 기부를 위해 자동이체(CMS)가능함.

3. 기부혜택

1)법인 : 지출 기부금에 대하여 소득금액의 10% 한도 손비 인정

2)개인 : 기부금의 15% 세액공제(단, 3천만원 초과시 25% 한도)

4. 기금 지원대상 및 운영방법

1)지원대상 :

-협회지 발행, 장학금 지급, 학술대회, 워크숍,힐링캠프, 체육활동

-기타 발전기금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 등

2)운영방법 : 협회 재정과는 별도 비용집행 및 회계처리, 정기적인 감사 실시, 운영실적 정례보고

5. 기타사항

1)발전기금 참여신청서, 자동이체 이용 신청서는 협회 홈페이지/알림소식/

발전기금운영위원회 참조

2)문의사항 : 발전기금운영위원회 양정란 간사(010-2345-3035)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유해성미확인물질의 정의를 신설하는 등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2024. 2. 6. 법률 제20232호, 2025. 8. 7. 시행), 화학물질 정보전달 수단으로 활용되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세부 항목 및 기재사항을 변경하고, 그 외 별표에서 정하는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기준을 수정하는 등, 화학제품 정보가 화학제품 취급자에게 원활히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부 문장, 그림기호의 표현을 수정함(안 별표 1, 별표 2)
나.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항목 및 기재사항 15번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제 항목을 추가함(안 별표 4)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 제110조부터 제11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1조, 제156조부터 제171조까지, 별표 18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115

정부·국회

노동장관,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본격 착수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총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7월 23일(수) 16시, 취임 이후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하면서, 정부의 산재 예방 활동을 현장 밀착형으로 대폭 강화하는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선언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가는 노동을 통해 살아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임 있다는 것이 확고한 정책 기조인 만큼,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산업안전감독관과 산업안전공단 직원이 대대적인 현장 점검·감독을 실시하고 본인도 매주 1회 이상 현장으로 직접 나가 점검·감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오늘 회의에는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장 뿐 아니라, 한국 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대한산업안전협회 회장, 대한산업보건협회 회장도 참석했으며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에 동참하여 힘을 보태기로 했다.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는 ▲전국 고위험사업장별 전담 감독관 지정 ▲12대 핵심 안전수칙 선정 ▲불시 점검을 통한 적발·시정조치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한다.

과거 산업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고려해 전국의 안전관리 취약 사업장 2만 6천 개소를 선정했으며, 사업장별로 전담 감독관을 지정하여 사업장 대표 또는 안전관리자와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위험 작업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필요시 즉각 출동하는 등 현장을 밀착 관리한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5대 중대재해(추락, 끼임, 부딪힘, 화재·폭발, 질식) 및 폭염 분야 12대 핵심안전 수칙을 선정하여 집중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12대 핵심 안전수칙은 과거 사고의 유형과 원인 등을 분석하여 국민 누구나 쉽게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며, 추락, 끼임, 붕괴 등 후진국형 사고를 일으키는 12대 핵심 안전수칙 위반 적발 시에는 즉각 시정토록 하고, 미이행 시 엄단할 방침이다.

산업안전감독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력 900명이 2인 1조가 되어 실시하는 점검·감독은 사업장의 경각심 제고 차원에서 예고 없이 불시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안전관리 취약 사업장 2만 6천 개소는 최소 1회 이상 직접 찾아가 점검하며, 필요하면 추가 점검을 통해 안전 위해 요소가 확실시 시정되었는지 확인한다.

김영훈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산업안전감독관이 과거와는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안전한 일터 조성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인 만큼 사업장에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동자 안전과 생명을 도외시키는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와 관용 없이 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094

노동부 장관, ㈜포스코이앤씨 전 현장 불시감독 지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7.28.(월)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창녕 간 건설공사 제10공구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번 사고는 공사부에서 지반을 뚫는 데 사용되는 기계인 천공기에 노동자가 끼이면서 발생한 사고로 금년도 ㈜포스코이앤씨에서 시공하는 현장에서 발생한 4번째 사망사고다.

- * (25.1.16.) 경남 김해시, 아파트 신축현장 추락사고(사망 1명)
- (25.4.11.)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복선전철 터널 건설현장 붕괴사고(사망 1명, 부상 1명)
- (25.4.21.) 대구 중구, 주상복합 신축현장 추락사고(사망 1명)

<고용노동부 조치 사항>

① 사고 즉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현장 출동하여 해당 작업 및 경사면 보강 작업 전반에 대해 작업중지를 명령, - 유사 천공기를 사용하는 ㈜포스코이앤씨 시공 전체 현장에 대해 사업주 작업중지 요구 및 철저한 자체점검 후 미흡요인 개선결과 노동부 보고

② ㈜포스코이앤씨 본사 및 시공 중인 전국 모든 현장(既 감독을 받은 현장(37개소)제외 65개소 내외)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조속히 착수하여 사고가 반복되는 구조적이고, 근본적 원인을 규명

③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신속·엄정 수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포스코이앤씨와 같은 대형 건설사(시공능력 7위) 현장에서 후진국형 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특히 앞서 세 차례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집중 감독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사고가 발생한 것은 본사 및 최고경영자(CEO)의 안전관리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 된다.”고 하면서,

“일벌백계의 관점에서 엄정히 수사하고, 현장 불시감독과 본사 감독을 통해 사고가 반복되는 구조적이고 근본적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115

정부·국회

노동부 장관, 폭염 절정 “중복”에 “물류현장 불시 점검”

혹서기 맨홀 질식사고 근절 특단대책 추진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폭염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인 가운데 7월 30일(수) 13:30경 쿠팡 동탄물류센터를 불시 방문하여 폭염속 노동자들의 작업 및 휴식 환경을 점검했다. 이는 지난 22일(화) 건설공사 현장점검에 이은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두 번째 현장점검이다.

해당 물류센터는 다층식 선반구조(메자닌 랙; Mezzanine Rack)로서 내부 공기흐름이 정체되어 작업장 온도가 쉽게 올라온열질환에 취약한 특징이 있다. 이에 시원한 물 제공, 냉방장치 설치, 가동 및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준수 여부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지 여부를 점검했다.

* 5대 수칙: ①시원한 물, ②냉방장치, ③휴식(2시간마다 20분 이상), ④보냉장구 지급, ⑤119 신고

점검 결과, 폭염 노출을 줄일 수 있도록 냉방·환기시설 확충, 휴식시간에 노동자들의 체온을 낮출 수 있는 냉방장치와 시원한 물이 완비된 휴게시설(Cool Zone) 확대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되어 신속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노동자의 사소한 온열질환 증상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시원한 물과 주기적인 휴식 부여, 119 신고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준수하여 온열질환을 예방할 것을 강조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투자다. 폭염에 취약한 물류센터 구조상 같은 현장에서 같은 방식으로 사고가 반복될 수 있다는 건 예측 가능하다. 연일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노동자들이 주기적으로 근무장소와 가까운 곳에서 시원한 물을 마시는 등 휴식을 취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특히 “지난 17일부터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부여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이 의무화되었고, 35도 이상에서는 더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므로 매 시간 15분 이상 휴식 부여를 권고하면서 이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최근 폭염 속에서 맨홀작업 중 질식재해가 급증함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으로 “혹서기 맨홀 질식사고 근절 특단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7월까지 맨홀에 들어가 작업하다 사망한 사람은 6명으로 이미 전년도 발생 수준(사망 1명)을 훌쩍 넘어서고 있다. 사고는 사전에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지 않고 환기나 보호장비 없이 작업하다가 발생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7.31.부터 9.30.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상·하수도 맨홀 작업에 대한 현장감독을 추진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맨홀작업 일정을 사전에 제출받아, 작업 전 산업안전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해 질식재해 예방 3대 안전수칙(①작업 전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②충분한 환기, ③송기마스크 등 호흡보호구 착용) 이행 여부를 집중 감독하고, 위반 현장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은 ‘맨홀작업 안전지킴이’로서 지역 현장 순찰활동과 함께 3대 안전수칙을 집중 지도하고, 안전수칙 미준수 현장에 대해서는 지방노동관서에 통보하여 감독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계약 단계에서부터 질식위험 업무에 대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밀폐공간 작업 시 사전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주의 의무도 강화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폭염 속 맨홀작업은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 위험 요소가 있는 만큼, 현장에서 질식재해 예방 3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고용노동부는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모든 역량과 수단을 총동원할 것”임을 밝혔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129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124

안전보건공단

주간 사망사고 속보

[[7/12, 경남 거창군] 절단된 배관이 작업발판과 충돌하여 떨어짐
 [7/19, 강원 원주시] 화물차량과 접안시설 사이에 끼임
 [7/20, 경남 창원시] 선박 선저부 상태 확인 중 질식(추정)
 [7/21, 경남 창원시] 인양 중이던 공구함이 떨어져 맞음
 [7/21, 경기 파주시] 이동식 비계에서 내려오다가 떨어짐
 [7/22, 인천 중구] 차량을 몸으로 막던 중 부딪힘
 [7/22, 경기 안성시] 움직이는 이송설비에 부딪힘
 [7/22, 울산 울주군] 철골구조물 위에서 이동 중 떨어짐
 [7/23, 전북 김제시] 가동 중인 로봇에 부딪힘
 [7/23, 인천 연수구] 이동 중인 지게차와 부딪힘
 [7/24, 경북 포항시] 풀베기 작업 후 쓰러짐
 [7/24, 대구 중구] 고소작업대 붐대가 흔들려 떨어짐
 [7/24, 전북 김제시] 배관 수심 측정 작업 중 쓰러짐
 [7/27, 경기 안성시] 시내버스와 고소작업대 붐대가 부딪혀 떨어짐
 [7/27, 서울 금천구] 맨홀 내부에서 쓰러짐
 [7/28, 강원 동해시] 작업발판 사이로 떨어짐
 [7/28, 경남 의령군] 회전축에 안전대 짐줄이 끼임
 [7/28, 충북 충주시] 원료탱크 내부에 떨어짐
 [7/29, 경남 창원시] 훗줄 해체 중 철제물에 맞음
 [7/29, 경기 용인시] 배관에서 도색작업 중 떨어짐
 [7/31, 충북 음성군] 차량시설 상부에서 작업 중 떨어짐

건설노동자 산재예방과 고용개선 위해 협력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과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가 7월 22일(화) 건설노동자 산업재해예방 강화 및 고용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건설노동자 산업재해예방 강화 및 고용개선을 위한 업무협약』

- 일시 : 2025. 7. 22.(화) 15:00~
- 장소 : 안전보건공단 본부(울산 중구 중가로 400)
- 참석 : (안전보건공단) 김현중 이사장 등
(건설근로자공제회) 김상인 이사장 등

이번 업무협약은 건설현장 사업주, 노동자 등 관계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산업재해예방 등을 위한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체결되었다.

양 기관은 건설현장 노동자 산업재해예방 및 고용개선을 위해 ▲기관 간 보유 데이터 상호 연계·활용 및 안전점검을 지원 ▲협업 교육과정 운영 등 안전보건교육을 강화 ▲건설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한 집단 역학조사 등 연구에 협력할 계획이다.

안전보건공단 김현중 이사장은 “두 기관의 사업을 연계해 효과적인 건설노동자 재해 예방에 함께 앞장서겠다”라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건설현장 산업재해예방 지원체계가 강화되고 안전의식이 확산되어, 건설 안전문화까지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kosha.or.kr/kosha/report/pressreleases.do?mode=view&articleNo=456091&articleOffset=0&articleLimit=10>

맨홀작업 안전지킴이 모집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맨홀작업으로 인한 질식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맨홀작업 안전지킴이를 모집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산업위생전문가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맨홀작업 안전지킴이 모집 안내

활동기간 2025. 8. 4. ~ 9. 30.

참여대상 산업안전·보건전문기관 소속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활동내용 맨홀작업 현장 발견 시 산소 및 가스농도 측정, 적정 환기방법 및 보호구 착용 지도 (적정공기, 안전수칙 미준수 시 지방노동관서 통보)
 ※ 본 업무(협상 위박, 지청, 동력업무)와 병행 시에도 활동기간에는 불이익 없음

▶ 사업수행 절차

수행요원 등록 (온라인)	현장지도 (보고서 작성 제공)	실적제출	실적 검토/수수료 지급
수령요원	수령요원	수령요원-군단	군단

수수료 1일 246,000원(2개소 수행기준)
 ○ 1개소 수행시 1일 수수료의 50% 지급, 활동기간 종료 후 일괄지급

참여신청 하단의 QR코드를 통해 지킴이 활동 참여신청서 제출 (활동기간 중 수시)

사전설명회 온라인 사전설명회 개최(25.8.5(화) 16시)
 ○ 회의주소 : zoom.us/join
 *회의 ID : 540 589 2267, 비밀번호 : 1234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OPEN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맨홀작업으로 인한 질식 사망사고를 예방하고자, 맨홀작업 안전지킴이를 모집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1. 활동기간 : 2025. 8. 4. ~ 9. 30.
2. 참여대상 : 산업안전·보건전문기관 소속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3. 활동내용
 1) 맨홀 내부 출입현장 발견 시 산소 및 가스농도 측정 지원
 2) 적정 환기방법
 3) 보호구 착용 지도
4. 수수료 : 일일 지킴이 활동 수행 수수료 지급 예정(종료 후 일괄지급)
5. 참여방법 : 첨부 QR코드를 통해 참여신청서 접수
6. 사업설명 : 온라인 사전 설명회를 개최예정
 ※ 신청서 제출 시 회의주소 등은 개별발송 예정

문의처 : 공단 본부 산업보건실 담당자(☎052-703-0387)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kosha.or.kr/kosha/report/notice.do?mode=view&articleNo=456130&articleOffset=0&articleLimit=10>

안전신문

李대통령, 전 부처에 올해 '산재 사망 근절 원년' 각오 주문

산업안전감독관 증원 본격화... 내년까지 1300명 가량 총원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를 산재 사망 근절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노력할 것을 전 부처에 주문했다.

2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해서 산재 사망사고가 벌어지고 있다. 살자고, 돈 벌자고 간 직장이 전쟁터가 된 것"이라며 이와 같이 전 부처에 주문했다.

지난 spc, 포스코이앤씨 등 같은 기업서 지속 발생하고 있는 재해를 이 대통령이 겨냥해 고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은 "10대 경제강국, 5대 군사강국, 문화강국, 세계 최고의 민주주의 강국이나 후진적인 산재로 노동자가 일터에서 사망한다면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며 "특히 고용부는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라는 생각으로 임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재를 줄이는데 직을 걸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또 "사망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징벌적 손해배상과 함께 공공 입찰에 참여를 제한하거나 영업정지 조치를 하는 방식을 병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각 은행의 내규를 보면 기업의 평판 요소를 고려해 산재 사고가 일어나면 대출 제한을 할 수 있게 돼있다"며 "중대한 사고가 나면 ESG(환경·사회·투명 경영)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날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해 발언한 이 대통령은 "재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자꾸 문제를 제기하는데 저 역시 이 법이 그렇게 실효적인가 하는 의문이 있긴 하다"며 "대부분 집유 정도로 끝나는 데다 실제 이익은 회장이 보는데 책임은 사장이지고 있지 않나"라고 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은 법의 이름이 너무 센 것에 반해 처벌은 솜방망이"라며 "예방을 강화하되 예방하지 못했을 경우에 처벌 규정을 강하게 하는 것은 어떨까"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에 "맞는 지적으로 보인다. 처벌이 너무 넉거티브하게 느껴질 수 있다"며 "일정한 예방 성과를 내면 인센티브를 주는 식으로 하는 것이 더 문명적인 것 같다"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산재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전담검사제를 제안했고 이에 이 대통령은 전담 수사단 체계를 구축해 볼 것을 지시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부터 국민의 알 권리 확대와 투명한 국정 운영을 위해 국무회의가 가감 없이 공개됐고 앞으로도 비공개가 불가피한 부분을 제외하고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토록 하겠다는 게 대통령실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사항인 산업안전 분야 근로감독관 총원과 관련해 올해 300명, 내년까지 총 1300명 가량을 증원하는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근로감독관 1000명 증원을 내년 정기 직제에 반영하는 내용의 고용노동부 직제 개정안은 현재 행정안전부 심의가 마무리돼 예산 담당인 기획재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내년 예산안에 반영돼야 하는 만큼 기재부는 이달 말이나 9월 초까지 검토를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근로감독관 300명 증원을 수시 직제에 반영하는 개정안 또한 행안부·기재부 심의가 완료돼 이달 안에 처리될 예정이다.

근로감독관은 크게 임금체불 등 노동 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감독관과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감독관으로 구분되는데, 올해 5월 기준 근로감독관 규모는 3100여명으로 이중 산업안전감독관은 900여명이다. 감독관당 평균 2400개 사업장을 맡고 있다.

최근 중대재해가 잇따르자 이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산업안전 업무를 실제로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약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총원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노동부는 직제 및 예산 협의를 하면서 근로감독관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임기제 채용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력과 지방노동청, 지청, 고용센터에서 산업안전 감독 경험이 있는 인력들로 일단 300명을 구성해 현장에 투입했고,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전입, 임기제 경력 채용 등도 추진한다.

1000명 총원을 위해서는 하반기 수시 신규 채용도 고려하고 있다.

인력이 빠져나온 자리는 앞서 노동부에 배치된 9급 일반행정직 155명이 채운다. 일반행정직은 올해 합격자 348명 중 절반 가까운 인원이 노동부에 배치됐다.

아울러 노동부는 현재 관계 부처 협의회가 마무리된 300명 외에도 필요하다면 추가로 수시 직제 협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채용은 앞으로도 계속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지닌 인력이 최대한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며 "어느 정도 전문성을 지닌 사람을 위주로 받을 예정이라 교육 후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0650>
<https://youtu.be/wHjaedQPR2U?si=n1dCAFOfjK88aXq>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0766>

오이레터

HealthBench로 본 의료 AI 성능, 과연 믿을 만할까

AI모델이 믿을만한지 평가하는 방법 - 의사면허시험 통과하기

의료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활용 가능성을 논할 때, 가장 중요한 전제는 '이 모델이 정말 믿을 만 한가?'라는 질문에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기 의료 AI의 벤치마크 테스트는 인간 의사가 치르는 면허 시험을 그대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USMLE(미국 의사면허시험)나 KMLE(한국 의사국가고시) 같은 표준화된 시험을 통해 모델의 성능을 측정하고 비교하는 것이 주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법은 실제 의료 상황에서도 시험점수와 동등한 성능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객관식 문제는 실제 임상 의 다양적 복잡성을 포착하지 못했고, 단답형 질문 역시 환자와의 역동적 상호작용이나 불안정한 정보 속에서 추가 단서를 찾아내는 능력을 평가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대부분의 최신 모델이 정답률 90%를 상회하는 점수를 기록하면서, 이들 시험은 변별력을 상실하고 성능 비교의 도구로서 효용성을 잃게 되었습니다.

AI 신뢰성을 평가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 대화형 임상 벤치마크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 AI 모델 검증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OpenAI가 열었습니다. 2025년 5월에 공개한 HealthBench는 대형언어모델(LLM)이 실제 의료 상황에서 얼마나 잘 대응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기존의 객관식 시험 방식과는 달리, 262명의 의사가 직접 만든 5,000개의 실제 대화 시나리오를 통해 AI가 환자나 의료진과 대화할 때 얼마나 적절하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는 방식을 취합니다. 응급 상황 판단, 자원이 부족한 환경에서의 조언, 불확실한 상황 대처 등 7가지 주제로 나뉘어 있고, 각 답변은 정확성, 완성도, 상황 인식, 소통 품질, 지시 따르기 등 5가지 측면에서 평가받습니다.

쉽게 말해, "정답을 맞추는가?"보다는 "실제로 환자나 의사와 대화할 때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를 측정하려는 의도인 것입니다.

-이하 생략-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52letter.stibee.com/p/138>

특수건강진단 판정을 AI가 대신할 수 있을까?

미니 벤치마크 - 특수건강진단 케이스 테스트

해외 벤치마크는 대부분 영어 기반이고, 한국 의료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익숙한 특수건강진단이라는 맥락이나 한국어 기반 임상 질문에 대해서는 AI가 어떤 수준의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이를 직접 확인해 보기 위해, 이번 글에서는 HealthBench의 평가 방식을 참고하여 동일한 폐기능 검사 수치 및 그래프를 제시하고 특수건강진단 상황에서 흔히 경험하는 예시를 프롬프트로 제시하여 여러 AI 모델에게 해석을 요청해 본 결과를 공유합니다.

이 실험을 통해 AI가 실제로 얼마나 의사다운 판단을 할 수 있는지, 또 모델 간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0세 남성, 20년 경력의 타일공 케이스: 모델별 판정결과 비교

특수건강진단 업무 중 종종 만날법한 케이스를 필자가 임의로 만들었습니다.

PFT 역시 실제 사례가 아닌 교육용 자료로 공개된 것을 이용하였습니다. 간단한 히스토리와 해석 맥락을 아래와 같은 프롬프트를 통해 제공하였고,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 제1-3권을 첨부하여 참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Claude Opus 4 모델의 경우, 첨부파일 용량에 제한이 있어 프롬프트만으로 얻은 결과인 점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AI 모델별 해석 격차와 시사점

- 기본 수치 판독 능력은 표준화 단계, 응답속도를 고려한 모델 활용 전략 필요

1. 기본 생리·수치 판독 능력은 이미 표준화 단계 모든 모델이 FEV₁·FVC·FEV₁/FVC 등 핵심 지표를 유사하게 해석하고 경·중등도 폐쇄성 장애로 일관되게 진단했습니다. 이는 AI가 PFT와 같은 정량적 데이터 처리에서는 '전문가급 일관성'에 이미 도달했음을 보여줍니다.

2. 판정등급 일관성은 아직 미완성 판정등급 분류에서는 GPT-계열·Claude가 대체로 C1(직업병 요관찰자)을, Gemini만 D1(직업병 유소견자)으로 평가하는 등 모델마다 해석 기준이 엇갈렸습니다.

GPT o3 pro는 C1과 D2를 병합 제시하기도 했는데, 이는 '직업성 vs 일반질병' 가중치 분배 규칙이 내부적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건강진단판정이나 산재 심사와 같은 실무 적용을 위해서는 공통의 가이드라인·입력 포맷을 사전 정의하여 일관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하 생략-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52letter.stibee.com/p/139>